

卷, 4615頁.

② “五月(指至之 8年 5月一筆者), 忻都與史樞, 洪茶丘大敗珍島賊, 獲承化候斬之, 其黨金通精走耽羅.”—《元史》第208卷, 4619頁.

③ “四月(指至元 10年 4月一筆者), 經略史忻都同洪茶丘領兵入海, 攻拔耽羅城, 禽金通精等, 奉詔誅之. 六月, 植遣其大將軍金沂奏攻破濟州.”—《元史》第208卷, 4619頁.

④ “耽羅, 高麗與國也. 世祖既臣服高麗, 以耽羅爲南宗, 日本衝要, 亦注意焉. 至元六年七月, 遼明威將軍都統領脫朶兒 武德將軍統領王國昌, 武略將軍副統領劉傑往視耽羅等處道路, 詔植選國王王植選官導送. 時高麗叛賊林衍者, 有餘黨金通精遁入耽羅. 九年, 中書省臣及樞密院臣議曰, ‘若先有事日本, 未見其逆順之情, 恐有後辭, 可先平耽羅, 然後觀日本從否, 徐議其事. 且耽羅國王嘗來朝覲, 金叛賊逐其主, 據其城以亂, 舉兵討之, 義所先也.’

十年正月, 命經略使忻都, 史樞及洪茶丘等率兵船大小百有八艘, 討耽羅賊黨. 六月, 平之, 於其地立耽羅國招討司, 屯鎮邊軍七百人. 其貢賦歲進毛施布百匹. 招討司後改爲軍民都達魯花赤總管府, 又改爲軍民安撫司.

三十一年, 高麗王上言, 耽羅之地, 自祖宗以來臣屬其國; 林衍逆黨既平之後, 尹邦寶充招討副使, 以計求徑隸朝廷, 乞仍舊. 帝曰: ‘此小事, 可使還屬高麗.’ 自是遂復隸高麗.”—《元史》第208卷, 4624~4625頁.

日本에서의 濟州島 研究 現況

梁 聖 宗(日本東京 耽羅硏究會)

1. 머 리 말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제주도는 본토에서부터 떨어져 있어 隔絶性과 環海性 그리고 停滯性이 있는 섬이었다. 이러한 제주도의 연구는 한국내에서도 최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과 제주도 연구회, 제주도사 연구회 등을 비롯한 연구기관과 연구회에 의해서 활발히 연구가 전개되어 왔다.

일본에서도 근래에 와서 제주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연구가 전개되기 시작하고 있다. 일본에서 근래의 학술적인 제주도 연구는 泉清一씨에 의해서였고 그의 저작 「濟州島」(동경대 출판부 1966년)는 제주도 연구의 성과요, 제주도 연구방법의 고전이 라고 일본내에서는 정평을 얻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상싶다. 그의 「濟州島」는 제주도 연구의 기초문헌으로 높이 평가받는 셈이다. 그후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경기대학 장주근 교수와 제주대학 현용준 교수 등이 교류계획의 일환으로 동

경대 대학원에서 제주도 신화와 무속 등을 연구하였다.

그러한 계기로 7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일본 학자들의 제주도 연구를 위한 교류와 현지 조사가 있을 때마다 제주대학에 있는 현용준 교수에게서 좋은 조언과 지도를 받게 되어 이르렀다.

2. 分野別 濟州島 研究概觀

근래 일본에서 전개되고 있는 제주도 연구를 분야별로 개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촉박한 발표일시 때문에 이 발표에서는 동경에 있는 탐라연구회가 현재까지 입수하고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1) 歷史·考古學

고고학분야의 경우 江坂輝彌 교수와 제주도 송석범씨의 꾸준한 제주도의 고고학연구가 있다. 그 중 송석범씨는 「濟州島 古代文化の謎」(成甲書房 1984年)를 출간한 바가 있다. 이어 「濟州島의 先住民」(「濟州島」(2)「耽羅研究會」1989)을 발표하였다.

한편 역사분야의 경우 森公章, 寬敏生, 岡田英弘, 高橋公明, 藤永壯 계서등 신진 학자들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그 중 耽羅의 古代歷史 分野의 研究에 있어 森公章씨의 「耽羅方補考—8世紀 日本と耽羅の交通」(「續日本紀研究」(239), 1985年)와 「古代耽羅の歴史と日本」(「朝鮮學報」(118), 1986) 등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寬敏生씨의 「耽羅王權と日本」(「續日本紀研究」(317), 1989)이라는 논문이 있다.

그리고 耽羅의 中世歷史 分野의 연구에 있어 岡田英弘씨의 「元順帝と濟州島」라는 논문이 있고, 高橋公明씨는 89년 8월초 名古屋大學 大學院生 5명을 인솔하여 제주도 현지를 조사하여 倭寇의 역사유적을 찾은 일과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를 예방하여 연구소가 소개한 金仁顯 선생을 초빙하여 「耽羅國名語義考(假說 高句麗系 耽羅王朝 建國說)」의 연구발표를 듣고 토론회를 가졌다. 高橋씨는 89년 7월 NHK의 연속프로인 歷史探訪 「倭寇」에 출연 제주도와 왜구와의 관계를 언급하였다. 이 역사탐방프로그램을 위해 NHK 보도부가 來道하여 일주일간 체재하여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의 협조아래 「倭寇」와 관계가 있다고 믿어지는 현장을 답사하였다.

高橋씨는 「中世 東アジア海域における海民と交流—濟州島を中心として—」(名古屋大學文學部 研究論集) 史學(33) 1988)와 「高得宗 研究」(「耽羅文化」(10) 1990, 濟州大學 耽羅文化研究所) 등의 논문과 水賊과 제주도민의 활동과 제주도 관계 표류인을 중심으로 하여 「朝鮮外交 秩序と東アジア海域の交流」(「歷史學研究大會報告」1987)라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근래 역사분야의 연구에 있어 藤永壯씨의 「濟州島海女の鬭爭」이란 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

기타로 1988년 12월 10일 日本 東洋大學 アジア アフリカ文化研究所 주최로 同大學 創立 100周年記念 초청 공개강연에 梁淳秘 교수가 「濟州の流配文化」를 발표한 것도 특기할 일이다.

現代史 분야의 연구에 있어 1948년 4월 3일에 일어난 「濟州島 4·3事件 40周年 追悼 紀念講演會集」(新幹社, 1988)이 출간되었는데 그중 梶村秀樹씨의 「現代史中の濟州島 四三事件」이란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2) 地 理

高野史男 교수를 비롯한 立正大學 지리학 교실이 중심이 되어 1984년에 韓日合同 韓國濟州島學術調査團을 구성하여 1984, 85, 86, 87년 5회에 걸쳐 제주도 현지를 답사하고 보고서 「韓國 濟州島の地域研究」(立正大學 韓日合同 韓國 濟州島學術調査團) (1988.3)를 발표한 바가 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濟州島の地域性とその 地理的 歴史的 背景(高野史男), 濟州島の地質と地形(姜相培), 濟州島の水利地理について(崔茂雄), 濟州島における水文環境について—特に地下水, 湧水の水質と利水—(田中信太郎 外 3인), 濟州島の氣候(李賢英), 濟州島の洞窟(洪始煥), 濟州島における柑橘生産の展開(澤田裕之 外 3인), 濟州島における海女漁業の變貌と生産形態(元學喜), 濟州島の觀光と觀光地形形成(大塚昌利 外 2인), 濟州島における商業中心地の配置と機能(鈴木厚志) 등등으로 되어 있다. 한편 高野 교수는 「耽羅古代地理考」(濟州島)(1)(2) 耽羅研究會, 1989)를 발표한 바 있다.

3) 地 質

지질 분야의 연구에 있어 種子田定勝씨의 「濟州島 火山の地質學的 岩石學的 古地磁氣學的 性格」(九州大學, 1973)과 澤勲씨의 「濟州火山島の噴出過程と萬丈窟年代との比較研究」(耽羅)(1), 日本耽羅學會, 1988)라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4) 建築・家屋(民家)

건축·가옥(민가)의 연구에 있어 若林弘子씨의 「濟州島草屋の建範尺度」(耽羅)(1), 日本耽羅學會, 1988)라는 논문이 발표된 바 있고 芝浦工大·畑聰一 교수 등이 鳳城里와 下院洞에 소재하고 있는 민가의 전통과 그 변화를 실지 조사하여 이것을 동아시아의 타지역과 비교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한편 90년 5월 佐佐木史郎, 松本誠一, 若林弘子 등 세 사람의 「濟州島の民家と住まい方」이란 논제로 좌담회가 있어 그것이 「濟州島」(3) 1990, 耽羅研究會)에 발표되었다. 櫻井哲男씨의 「濟州島(城邑里の民家)」(國立民族學 博物館 總合案内追録, 民族學術振興會, 1983)라는 논문이 있다.

5) 民俗, 文化人類學

민속 분야의 연구는 다른 분야보다 활발한 셈이다. 琉球大學에 있는 신진학자 津波高志 교수는 제주도의 상속과 전승으로 보는 가족관계를 연구 중 「分居形態からみた濟州島の家族」(沖繩社會 民俗學 ノート) 第一書房, 1999)와 「濟州島 東部地域の相續慣行」(比較民俗學會會報)(3), 1985)을 발표한 바 있고 津波 교수는 현재 琉球대학에서 강좌 「濟州島」를 설강, 강의하고 있다. 1987년 12월에 大阪에서 日本耽羅學會를 창립하고 그 학술지 「耽羅」(1988)의 창간호를 출간한 鳥越憲三郎씨는 「蛇神と兎山里の事件」(耽羅)(1), 日本耽羅學會, 1988)을 발표하였다.

제주도 태우 관계 연구로는 여러 차례 제주도 현지를 조사하고 발표한 出口晶子씨의 「濟州島のイカダブネ」(「季刊 民俗學」, 1987)「濟州島筏船の建造 採船, 漁撈技術」(「耽羅文化」(8),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9) 등의 논문이 있다.

한편 北見俊夫씨의 「濟州島 酒女」(「平凡社」, 1986), 內藤完爾씨의 「五島列島と濟州島の家族—末子相續形成の基盤」(「山岡樂一 教授 古稀記念論文集」, 晃洋書房, 1979), 櫻井筵子씨의 「濟州島の子供の遊び歌」(「東洋音樂研究」(44), 1979), 櫻井哲男씨의 「音樂人類學の試み(1)—濟州島の民俗音樂」(「音樂學」(21), 1976)과 「濟州島にながれる仕事歌」(「世界旅行, 民族の暮らし」日本交通公社 1982), 「濟州島の春」(「民博通信」(21) 1983), 「濟州島の海女」(「季刊民族學」(27) 1984), 「子供の遊び歌, 韓國 濟州島の事例をめぐって」(「民博通信」(29), 1985), 「濟州島 風土, 環境, 子どものあそび」(くもん出版, 1985), 濟州島 民俗音樂の現代的 變容・續・音樂人類學の試み」(「音樂學」(32)), 左藤信行씨의 「濟州島の家と家族」(「都市住宅」(210), 1978), 「濟州島の家族一村の事例から」(「東洋文化」(53), 1973), 「濟州島の 家族, 親族」(「アジア文化研究」(7), 1973), 「濟州島から—韓國のことと韓國で氣ついたこと」(「季刊 人類學」(4), 1973), 「濟州島の祖先崇拜」(「崇拜研究」(46), 1973), 「濟州島のサドン」 南島史學會編(「南島の歴史と文化」國書刊行會, 1976), 辻後三씨의 「韓國濟州島の ドングリドーフ」(「月刊 韓國文化」(8), 1986), 上江州均씨의 「濟州島の 民具」(「沖繩民俗研究」(6), 1986) 등등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6) 農 業

제주도 농업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岐阜大學의 松村正孝 교수 등의 「濟州島の農業生態學的 調査」라는 과제로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3. 맺으면서(전망)

日本에서의 濟州島 研究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폭이 넓어졌다. 그중 민속분야의 연구 조사가 다른 분야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런 가운데 松本, 櫻井, 津波 등 세 교수가 서로 連携하여 제주도 민속 등의 연구를 전개하고 있어 앞으로의 기대가 크다 하겠다.

역사 분야에서는 일본사 연구와 관련지어 연구과제로 취급된 것이 특징적이고 아직까지는 그 연구가 산발적이다. 앞으로 高橋公明씨의 연구가 크게 기대할 것으로 믿어진다.

耽羅研究會(東京, 1985), 日本耽羅學會(大阪, 1987) 등의 연구회, 학회가 창립되어 일본에서의 제주도 연구는 점차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에서의 이 두 耽羅關係 研究會(학회)와 본국의 연구단체(기관)와의 학술 교류는 학술강연회 개최, 참가, 초빙 등을 통하여 보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믿어진다.

현재 耽羅研究會는 1945년 이후 일본에서의 濟州島에 관한 연구 논문 목록을 작성

중에 있고, 금명간에 발표되면 보다 오늘 발표에서 부족한 점이 보완될 것으로 믿는다.

제주 4·3사태와 주변성의 문제 사태 논의의 방법을 위한 하나의 시론

玄 吉 彦(漢陽大)

1. 제주 사태를 논의해야 하는 이유

1) 최근에 들어와서, 제주지역 문제 중에서 4·3사태에 따른 여러 일들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미 사태가 종식되어 35년이 넘었는데도, 그 동안 이 사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거나 대책이 강구되지 않았다. 이러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이 사태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남아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태는 고식적으로 은폐하거나, 시류에 의하여 안이하게 논의해서는 극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부수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도 없지 않다.

2) 지금까지 이 사태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입장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관변적 기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데올로기 편향적 인식이다.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좌파 재일 교포들의 주관적 보고서와, 일부 진보적 재민 학자들에 의한 몇 편의 논의가 전부였다. 그러다가 80년대 중반 이후 국내정치 상황이 풀리면서 정치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유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과거의 관변적 인식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도 시류적인 데 편향하거나 관변적 인식의 부도덕함에 대한 일종의 도덕성 회복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감상적인 인식에 기울어져 있어 또다른 취약함을 지니고 있다.

최근 서울이나 지방 여러 대학에서는, 제주 4·3사태 연구회라는 학생서클이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고, 도내외에서도 소그룹 연구회가 조직되어 있다. 이들은 주로 자료 수집을 통한 사태의 실상 파악에 주안점을 두고, 현지조사, 문헌기록 정리, 체험 증언 채록 등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3) 이러한 조사 연구 활동은 그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한계도 지니고 있다. 앞으로 이들의 조사 성과로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 결과물 도모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많다. 그 이유는, 참여자의 비전문성, 그 동기의 시류성, 그 인식 방법의 비학문성 그리고 그 규모의 취약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조사 연구 성과를 토대로, 더 진지한 논의를 거쳐 학문적 성과